

“우리 농축산물 먹기운동은 제2의 물산장려운동”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상임집행위원장 박노원 목사

◇…GATT/BOP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시한이 불과 7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중심으로 한 24개단체가 지난 2월 6일 기독교회관에서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 농축산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부터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발족된 국민운동본부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집행하게 될 상임 집행위원장 박노원 목사를 만나보았다.

박 위원장은 서울에서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70년대 초반에는 양평에서 돼지를 직접 사육하기도 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농촌을 살리는 이 운동에 발벗고 나섰는지도 모른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부 총무로 일하고 있다.◇

— 인터뷰 : 김동성 —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박 위원장 : 작금의 우리 농촌은 외국 농축산물의 무차별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해 날로 피폐화되고 있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은 이런 시류를 부추기듯 농축산물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고, 정부도 경제의 근간이라 할 중농정책보다는 수입개방압력에 방조하거나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심각하게 느낀 KNCC 여성위원회와 교사위원회 등 여성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계 단체에서 89년 10월 21일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을 연대해서 벌이자는 발의가 있었고, 이어 KNCC 6개교단과 YMCA, 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 등 24개 단체가 5차례의 세미나와 정책토론을 거쳐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으로 계획을 했다가 너무 편협적이고 포괄적이며,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우리 농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89년에 농축산물 1,500만톤 수입해 50억불 지출

박 위원장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농축산물 수입고객중 일본, 소련 등에 이어 4번째로 큰 고객이고, 1,300여가지의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88년에 1,071톤을 수입해

서 40억불이 지출되었고, 작년엔 1,500만톤이 수입돼서 50억4백만불을 지출했습니다. 이중 70~8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지출은 곧 농민의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운동본부의 성격과 운동목표는...

우리 농축산물 먹기운동은 곧 소비자운동

박 위원장 : 이 운동은 처음 기독교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진 운동인데, 곧 소비자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운동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운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은 지양하면서 범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의 목표를 국민생명보전, 민족자립경제확립, 우리 농축산업 보호, 민족문화보존에 두고 있습니다.

-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생각인지...

수입반대보다 국민의식 개발이 가장 중요

박 위원장 : 농축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 외국에



△ 국민운동본부 박노원 상임집행위원장

서 농축산물을 수입해 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사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소비자의식개발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농축산물 제값받기 운동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요.

세번째는 우리 먹거리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身土不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죠. 한국사람들은 한국 땅에서 난 것을, 미국 사람은 미국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정상이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은 수천, 수만년간 우리 땅에서 나는 음식에 적응돼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 땅과 음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먹거리와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번째는 공해없는 음식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수입농축산물에는 농약과 각종 유해물질이 많아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도 공해없는 식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공해없는 유기농산물 사먹기 운동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민족자립경제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수입개방압력에 국민적으로 대처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내에 중농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같은 운동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전개하시겠습니까?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 동원 계획

박 위원장 : 우리는 범국민적인 캠페인과 전국순회강연회, 국민식생활 및 외국농축산물 안먹기 지침서 발간, 농촌부락과 도시집단의 자매결연, 외국농축산물 수입개방제한 서명운동(대기업의 수입금지)방식을 통해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우리 농축산물 먹기대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우리과일먹기 대회 등도 양돈협회와 유가공협회, 기타 유관단체와 함께 개최해 국민의식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선 구체적인 반대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유관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회사에 대한 시위, 항의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

다.

- 이와같은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할텐데...

각 도에 도지회 구성해 전국으로 조직 확대할터

박 위원장 : 저희 국민운동본부는 공동의장 6명과 상임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간사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가입단체의 총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운동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조직을 위해 각 도에 지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유관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해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외국제품을 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수입품이 국산보다 훨씬 싼 경우도 있고, 또 수천만원씩 하는 고급가구 등 소비재들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과소비 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애국심에만 호소한다면 잘 먹혀들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 운동은 제2의 물산장려운동

박 위원장 : 우리는 이 운동을 애국심에 호소한다기보다 국민의식을 개발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면 국민경제에도 이익이지만, 소비자에게도 이익이고 생산자에게도 공히 이익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간에 피차 이익인 것입니다.

처음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는 외국 농축산물이 당장은 싼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대로 목화나 밀과 같이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가격이 어땠습니까? 생산기반이 없어지고 나면 가격은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같은 것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면 소비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운동을 제2의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계 일각에선 우리나라

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 농축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농림수산부가 몇일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업무내역을 보면, 89년말 현재 734만명(17.3%)인 농촌인구를 2001년에는 516만명(10.4%)으로 대폭 줄일 계획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물어진 농축산물 생산 기반 복구하는데는 최소한 20~30년 걸려

박 위원장 : 저는 비교우위론이 2, 3차 산업에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1차산업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예를들어 전쟁이 나든가 자연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국민들에게 식량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그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뿐더러 국가변란과 같은 위기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안보도 필요하지만 최고의 안보는 식량입니다. 식량의 생산기반이 허물어진 후 다시 기반을 갖추려면 20~3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비교우위론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의식개발운동에 성공하기 위해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 같고, 또 당장 수입확대를 막기 위해선 제도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운동은 항구적·지속적·자주적으로 펼쳐져야

박 위원장 :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90년대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간의 열치고 설킨 현실을 보면 수입개방을 우리의 힘만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운동은 일시적으로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자주적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청원, 진정, 시위,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미국 현지에서도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정확히 알리는 노력도 1~2년내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본지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박 위원장 : 이제 양돈농가들도 어차피 국제화시대가 된 마당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경쟁에서 이 길러면 항생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의 신선한 육류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양돈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의 동참을 위해서 도지회 구성과 회원, 후원회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곧 나 자신과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 국민이 참여해서 같이 캠페인도 벌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특히 양돈협회와 같은 생산자단체와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 전화(02)741-4359, 763-3356